

CLOse UP |

# 물류업계 “CEO가 달라졌어요”

글. 김철민 기자

국내 물류기업을 이끄는 CEO들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. 과거 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외부인물 발탁과 파격인사가 그 이유다. 또 그룹 내 주요직책을 겸임하며 중책을 맡는 사례도 늘고 있다. 이뿐만 아니다. 공학박사 출신의 택배사 사장이 등장했는가 하면, 업체마다 3PL, 글로벌 등 사업영역별 전문 경영체제를 도입하면서 물류업계 CEO들의 면면이 이목을 받고 있다. 말 그대로 화려한 변신이다.

## 삼고초려(三顧草廬) 끝에 외부영입

임기를 8개월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해 거취가 주목됐던 이채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4월1일 CJ GLS를 합병해 출범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에 취임했다. 삼성, GE를 거쳐 직장생활 절반을 성공한 CEO로 보내 잘 알려진 이 부회장이 CJ에 영입된 것도 의외지만 물류기업 대표로 변신했다는 점에서 업계 더 화제가 됐다.

CJ는 이 부회장을 영입하면서 ‘삼고초려’ 끝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 부회장 타이틀만 봐도 그렇다. 그룹에서 오너 일가(이미경 CJ엔터테인먼트 부회장)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직급이다. 이 부회장은 임기 3년으로 CJ대한통운이 ‘글로벌 물류 톱5(오는 2020년까지 매출 25조 목표)’에 오르도록 해외사업 개척과 조직통합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.

▶ 이채욱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



## 그룹 지주사 대표 겸임 중책

(주)한진 석태수 대표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한진칼홀딩스 대표까지 겸임해 중책을 맡게 됐다. 올 8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준비 중인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은 얼마전 열린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 계획을 승인하고, 한진칼홀딩스 대표에 석태수 한진 대표를 선임한 바 있다. 대한항공은 분할 계획에 따라 지주회사인 한진칼홀딩스와 항공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으로 나눠진다.

올해 6년째 한진을 이끌고 있는 석 대표는 물류업계에 보기 드문 장수(長壽) CEO다. 취임 첫해, 신세계그룹 물류회사인 신세계드림 익스프레스(현 한덱스)를 인수해 그 동안 취약했던 한진의 유통물류분야 영업활동의



▶ 석태수 (주)한진 대표